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한국주강(02589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강(025890)

조선·산업기계·발전 플랜트를 잇는 대형 주강 전문 솔루션 기업

기업정보(2026.06.05 기준)

대표자	하만규
설립일자	1987.08
상장일자	1997.07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주강, 주물 제조

시세정보(2026.06.05 기준)

현재가(원)	1,876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08
발행주식수	11,144,616
52주 최고가(원)	2,340
52주 최저가(원)	1,494
외국인지분율	4.52%
주요주주	한국제강(주)

■ 30여 년 주강 기술로 구축한 국내 대형 주강 과점 업체

한국주강(이하 동사)은 국내 주강 제조업계 상위권에 위치한 중견 기업으로 파악된다. 조선용 선미부 주강품(Rudder Horn, Propeller Boss, Stern Boss & Tube, Tiller 등), 산업기계용 주강품(Slag Pot, Crusher 구성품, Mill Housing, Girth Gear 등), 발전 설비용 주강품(Turbine Casing, Valve Body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선급(KR), 영국(LR), 노르웨이(DNV), 일본(NK), 미국(ABS) 등 9개 글로벌 선급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형 Arc 전기로와 LF 정련로를 기반으로 연간 최대 12,000톤(용강량 기준 19,950톤) 규모의 주강품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강과 압축분철을 양 축으로 하는 이원화 사업 구조

동사는 전통적인 주강사업과 함께 철삭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마 분철을 압축 가공하여 전기로 제강사에 납품하는 압축분철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압축분철사업은 일평균 최대 생산량 470톤을 전기로 제강사에 전량 납품하는 안정적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추가 라인 증설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두 사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매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 친환경·방산·에너지 인프라 성장으로 수혜 기대

조선 시황이 친환경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발주 증가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통상 원청 수주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주강 기자재 발주의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 진입 시점에 동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가스터빈 발전설비, 해상풍력 인프라, 방위산업 국산화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향후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함께 성장 동력이 다각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538.1	-1.03	24.2	4.50	25.0	4.64	7.95	5.41	33.98	221	2,959	13.76	1.03
2024	472.8	-12.13	10.7	2.27	7.6	1.61	2.27	1.78	21.57	67	3,063	27.88	0.61
2025	398.7	-15.67	-1.8	-0.44	-2.9	-0.73	-0.86	-0.73	15.10	-26	2,986	N/A	0.60

기업경쟁력

9개 글로벌 선급 인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 LR, DNV, NK, ABS, BV, GL, RINA, CCS 등 9개 선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보 - 30여 년에 걸쳐 구축된 진입장벽으로 신규 경쟁자가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 자산 - 글로벌 고객사 수주 및 수출 확대의 핵심 기반
대형 Arc 전기로 ·LF 정련로 기반 특수강 제련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TON 대형 Arc 전기로 및 LF 정련로 보유로 압도적 생산 효율과 특수강 제련 역량 확보 - NORSOK 등 재질 인증 취득 추진 중이며, 인증 후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압수전설비 포함 대규모 초기 투자가 요구되어 신규 진입자의 도입이 극히 제한적인 구조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조선용 선미부 주강품	Rudder Horn, Propeller Boss, Stern Boss & Tube, Tiller 등 선박 핵심 구동·조향 부품 제조 및 납품		
		● Rudder Horn	● propeller boss
압축분철 가공 기술	파마형 선반스크랩을 전용 라인으로 압축하여 부피 50% 축소, 600×600×600mm 정형화 제품으로 가공 후 전기로 제강사에 전량 납품		
		● lower casting	● stern boss&tube

시장경쟁력

국내 대형 주강 과정 시장 지위	단위 중량 50TON 이상 대형 주강품 제조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장기 축적된 공정 노하우 기반으로 과점적 시장 입지 확보
조선 호황 사이클 수혜	2024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 금액 2,300억 달러, 2025년도 역대 두 번째 수준 유지, 조선사 3~4년치 건조 물량 확보로 주강 수주 모멘텀 본격화(출처: Clarksons Research)
다변화된 전방 산업 포트폴리오	조선·산업기계·발전·플랜트 외 방산·해상풍력 등 신규 수요처를 동시 공략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특정 산업 경기 변동 리스크 완화

I. 기업 현황

대형 주강 전문 제조기업으로 조선·산업기계·발전 플랜트를 아우르는 핵심 소재 공급자

동사는 9개 글로벌 선급 인증과 대형 Arc 전기로·LF 정련로를 기반으로 국내 대형 주강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유지하며, 압축분철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NORSOK 재질 인증 취득 추진으로 수익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87년 설립 이후 경남 함안군에 생산 거점을 두고 조선·산업기계·발전 플랜트 전반에 걸쳐 대형 주강품을 제조·납품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1988년 LR(영국선급협회) 인증 획득 및 POSCO 협력업체 지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인증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였으며, 1995년 KOSDAQ 상장과 수출탑 수상, 1997년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2005년 ABS(미국선급협회) 인증을 추가하며 현재의 9개 글로벌 선급 인증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고, 이는 30여 년에 걸쳐 축적된 신규 진입자 대체가 어려운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2017년 한국스틸(주) 흡수합병과 2019년 법수공장 집중화를 통해 생산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2026년 자기주식 전량 소각 및 연구소 공식 설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술 기반 성장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의 대표이사는 하만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만규 대표이사는 영업·품질·재경·관리 전 부문에 걸친 폭넓은 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동사에 재직하며 사업 구조 개편, 법수공장 집중화, 압축분철사업 신성장 동력 육성 등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한국제강(주) 계열 편입 이후 계열 시너지를 활용한 경영 안정화를 이끌었으며, 2026년 자기주식 전량 소각 및 연구소 설치 등 주주가치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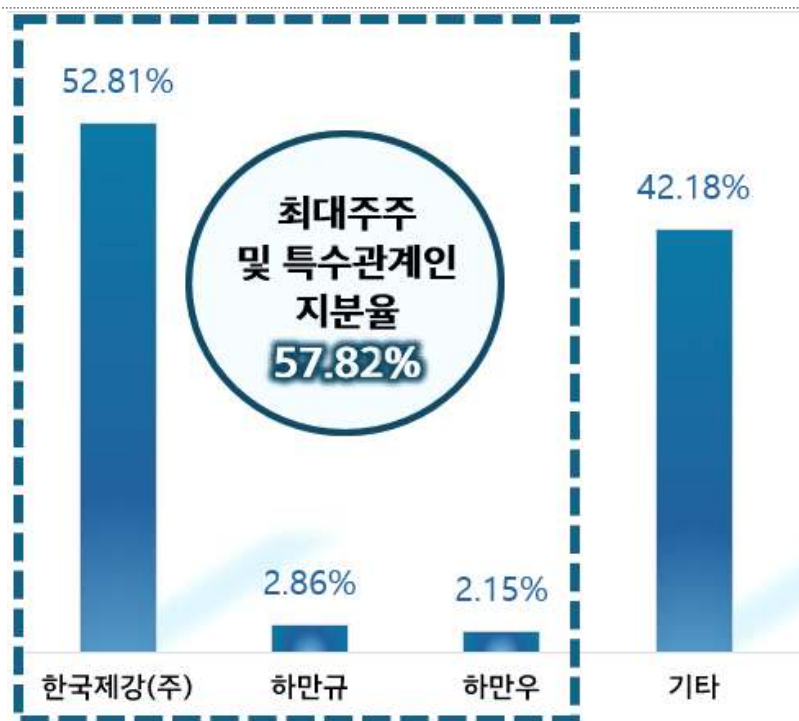
원재료 수급·생산공정·고객 영업 전반에 걸친 깊은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 전문 주강사 특유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제강(주)로 52.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만규 대표이사가 2.86%, 하만우가 2.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제강(주)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약 57.82%로, 안정적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 연속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주식소각결정(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부문

[주강사업]

주강사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으로, 조선·제철·제강·산업기계·시멘트·광산기계·발전 플랜트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걸쳐 대형 주강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합안 법수공장의 50TON Arc 전기로와 LF 정련로를 활용하여 주문 맞춤형 다품종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합금원소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강종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KR, LR, DNV, NK, ABS 등 9개 글로벌 선급 인증은 30여 년간 단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주요 조선사 및 해외 고객사와의 장기 거래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이 채산성을 이유로 주강 사업에서 철수하고 신규 진입도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동사는 과점적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철사업(압축분철사업)]

압축분철사업은 절삭가공 시 발생하는 파마형 선반스크랩을 전용 압축 라인으로 정형화하여 전기로 제강사의 장입성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부피 과다로 전기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파마분철을 부피 50% 축소, 600×600×600mm 규격으로 가공함으로써 제강사의 장입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 1분기 기준 일평균 최대 생산량 470톤이 전기로 제강사에 전량 납품되고 있으며, 전기로 제강사의 호평을 바탕으로 안정적 매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사업 부문

사업부문	품목	주요 사업 내용
주강사업	주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용 선미부 주강품(Rudder Horn, Propeller Boss, Stern Boss & Tube, Tiller) - 산업기계용(Slag Pot, Crusher 구성품, Mill Housing, Girth Gear) - 발전 설비용(Turbine Casing, Valve Body) 제조·납품
고철사업	압축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형 선반스크랩을 전용 설비로 압축 가공하여 600×600×600mm 규격의 정형화된 압축분철 제조 후 전기로 제강사에 전량 납품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최근 및 향후 사업동향

동사는 2026년 2월 연구소를 공식 설치하고 제품 개발 및 원가절감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 시황과 관련하여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신조선 발주 금액은 2024년 2,300억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813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약 3~4년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파악된다.

조선 산업 특성상 원청 수주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주강 기자재 발주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동사를 포함한 주강 업계의 수주 모멘텀이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사는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른 가스터빈 발전설비 수요 확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증가, 방위산업 국산화 추진 등 신규 수요처를 대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NORSOK 인증 취득을 추진 중이며, 인증 취득 이후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어 수익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시장 동향

조선·에너지·방산 수요 확대로 대형 주강 시장의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글로벌 신조선 발주 호황이 주강 기자재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방위산업 국산화 수요가 동시에 형성되면서 대형 주강 전문 제조업체의 시장 기회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목표시장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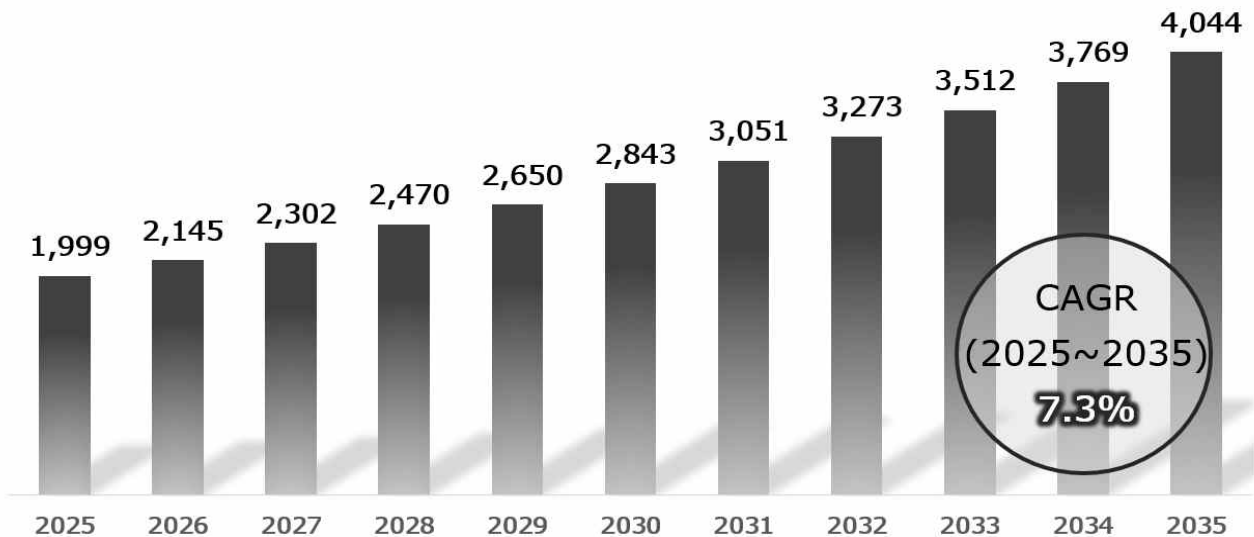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은 주강사업을 기준으로 국내 및 글로벌 대형 주강품 시장으로 정의된다. 조선용 선미부 주강품, 산업기계용 주강품, 발전 플랜트용 주강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주강·금속 주조 시장이 핵심 목표시장이며, 향후 방산·해상풍력 분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내외 금속 주조 시장 현황

글로벌 금속 주조 시장(Steel Casting 포함)은 2025년 약 1,999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7.3%의 성장률(CAGR)로 확대되어 2035년에는 약 4,0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발전, 인프라, 방위 등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글로벌 금속 주조 시장

(단위: 억 달러)



자료: Research Nester(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한국의 금속 주조 시장은 2025년 약 36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5.63%의 성장률로 확대되어 2034년에는 약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조선 발주 시장은 LNG운반선,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FLNG 등 친환경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발주가 집중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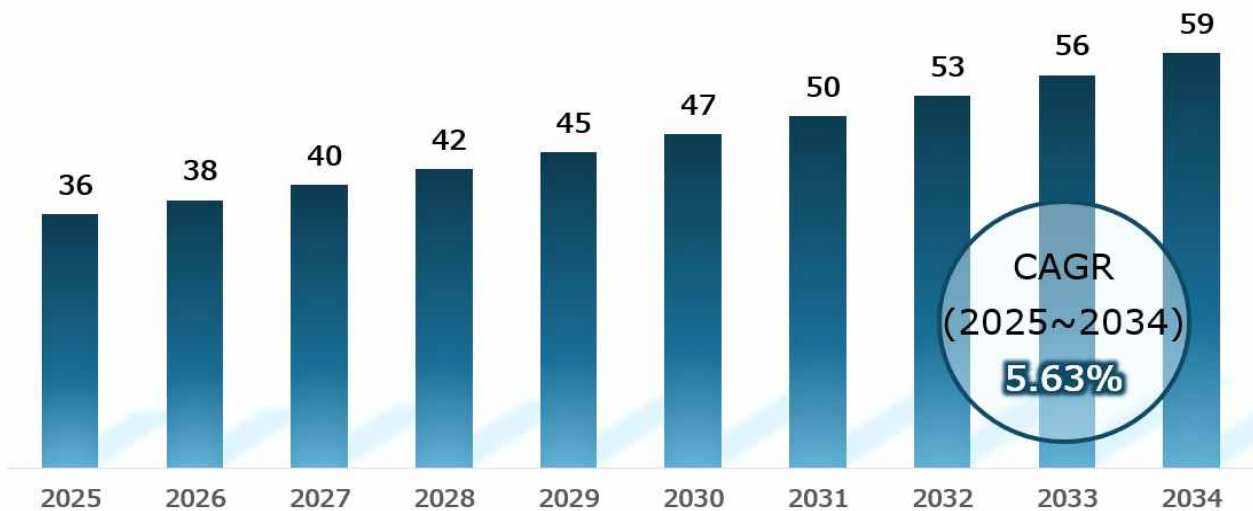
클락슨리서치 기준 2024년 발주 금액이 2,300억 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역대 두 번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국내 주요 조선사의 3~4년치 건조 물량 확보는 주강 기자재 업계의 중기 수주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주강(025890)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린 가스터빈 발전설비 수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요 역시 주강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방위산업 국산화 기조도 대형 주강품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금속 주조 시장

(단위: 억 달러)



자료: IMARC Group(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주강산업은 대형 Arc 전기로, LF 정련로 등 고압 전력 설비와 특수 합금 제련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파악된다. 고객사 사양에 따른 다품종 맞춤 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며, 글로벌 선급 인증 보유 여부가 조선용 주강품 시장 진입의 가장 높은 장벽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선진 주강사들이 고부가 발전·방산용 대형 주강품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물량 기반의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글로벌 선급 인증, 품질 신뢰성,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업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경쟁 구조와 관련하여, 단위 중량 50TON 이상의 대형 주강품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기업은 채산성을 이유로 주강 사업에서 철수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동사와 같은 전문 주강 업체의 과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사업 현황
(주)대창솔루션	조선·선박용 엔진 부품, 발전 설비 및 원전 폐기물 용기용 중대형 주강품 제조 전문 업체
동일금속(주)	굴삭기 및 크롤러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용 고내성·고품질 주강품 부품 제조 중심 업체
(주)대진메탈공업	조선엔진, 해양 플랜트 및 발전 설비(가스터빈 등)용 다품종·특수 주강품 공급 업체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글로벌 인증 구축·Arc 전기로가 만든 기술 진입장벽

동사는 30여 년에 걸쳐 완성한 9개 글로벌 선급 인증 및 CO₂ Process 기반의 대형 주강 전용 설비, 50TON Arc 전기로·LF 정련로의 특수강 제련 역량을 복합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인증·설비의 삼중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 30여 년에 걸쳐 완성한 9개 글로벌 선급 인증

동사는 1987년 KR(한국선급협회) 인증을 시작으로 영국 LR, 독일 GL, 노르웨이 DNV, 프랑스 BV, 일본 NK, 이탈리아 RINA, 중국 CCS, 미국 ABS까지 30여 년에 걸쳐 9개 글로벌 선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는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복제 불가능한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며, 글로벌 조선사 및 해외 고객사와의 장기 거래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주요 인증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50TON Arc 전기로·LF 정련로 기반 특수강 제련 기술

동사는 50TON 대형 Arc 전기로와 레이들 퍼니스(LF) 정련로를 핵심 생산 설비로 운용하며, 니켈·망간·알루미늄 등 합금원소를 정밀 배합하여 고인성·고연성의 주강 주물을 제조한다.

CUPOLA로·유도로 대비 대형 전기로는 용해 효율과 합금 제련 역량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나, 고압 수전설비 포함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수반되어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설비 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이 기반 위에서 NORSOK 재질 인증 취득을 추진 중이며, 인증 취득 성공 시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구조 개선에도 직접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압축분철 정형화 가공 기술

동사는 파마형 선반스크랩을 부피 50% 축소, 600×600×600mm 정형 제품으로 가공하는 전용 압축설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로 제강사의 장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공정으로, 일평균 최대 약 47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전기로 제강사의 호평 속에 일평균 470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철스크랩 수입 의존도 감소 및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환경 친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다.

그림 6. 동사 주요 제품

조선 관련

한국주강의 조선 관련 주강품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큰 생산과 비전으로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한국주강



● Rudder Horn



● propeller boss



● Crown

산업 관련

한국주강의 산업 관련 주강품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큰 생산과 비전으로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한국주강



● Frame

발전 관련

한국주강의 발전 관련 주강품을 안내해드립니다.
더 큰 생산과 비전으로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한국주강



● turbine casting



● valve body



● lower ca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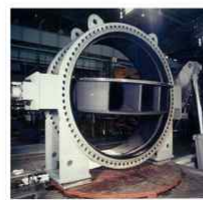
● stern boss&tube



● Column



● discharge head



● butterfly valve



● gate valve

자료: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최근 3개년 기준 2024년 약 5,325만원(매출액 대비 약 0.11%), 2025년 약 1.42억 원(약 0.36%), 2026년 1분기 약 4,959만 원(약 0.56%)으로 확인된다.

표 3.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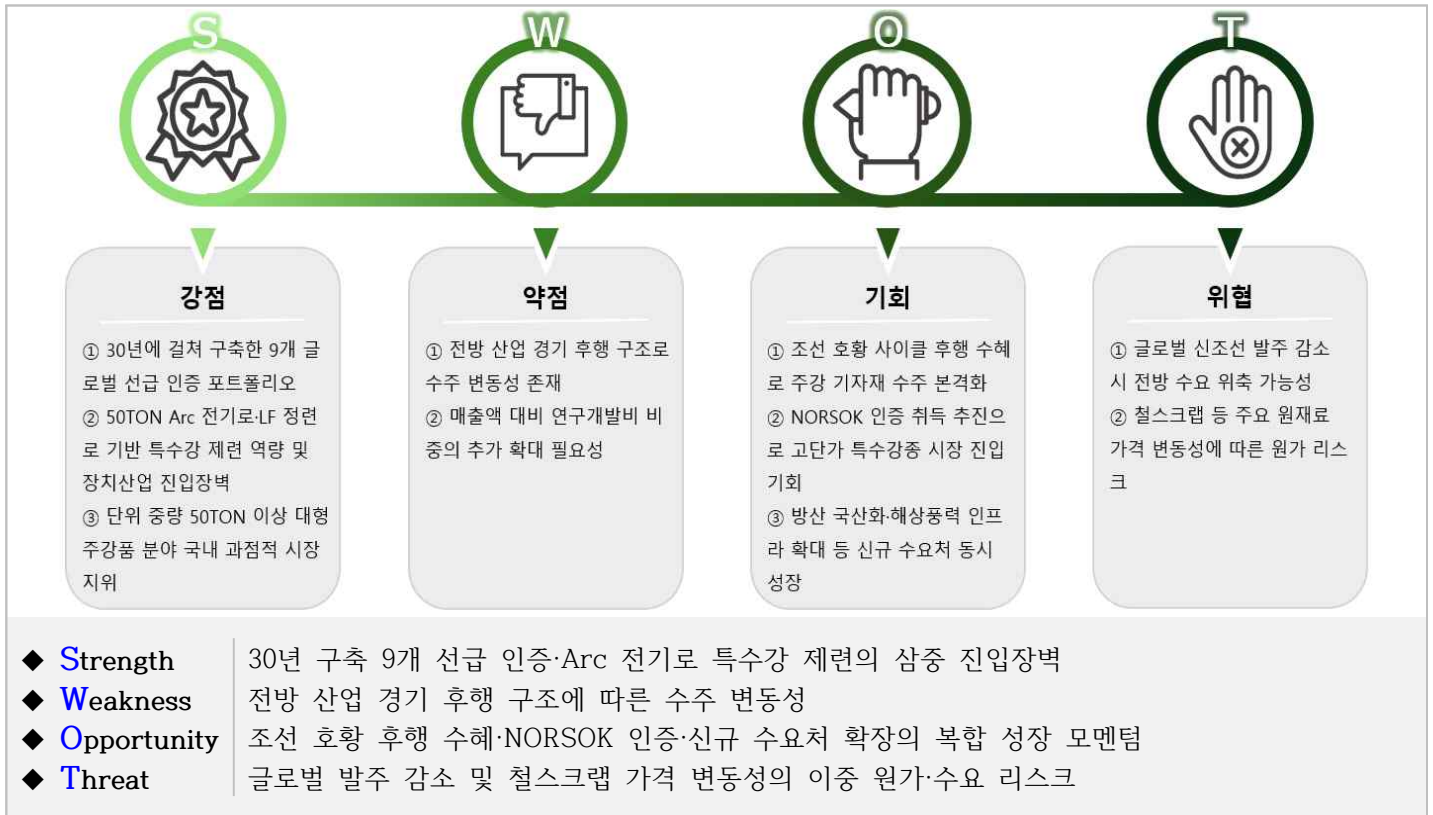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연구개발비용 계	4,959	14,268	5,325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0.56%	0.36%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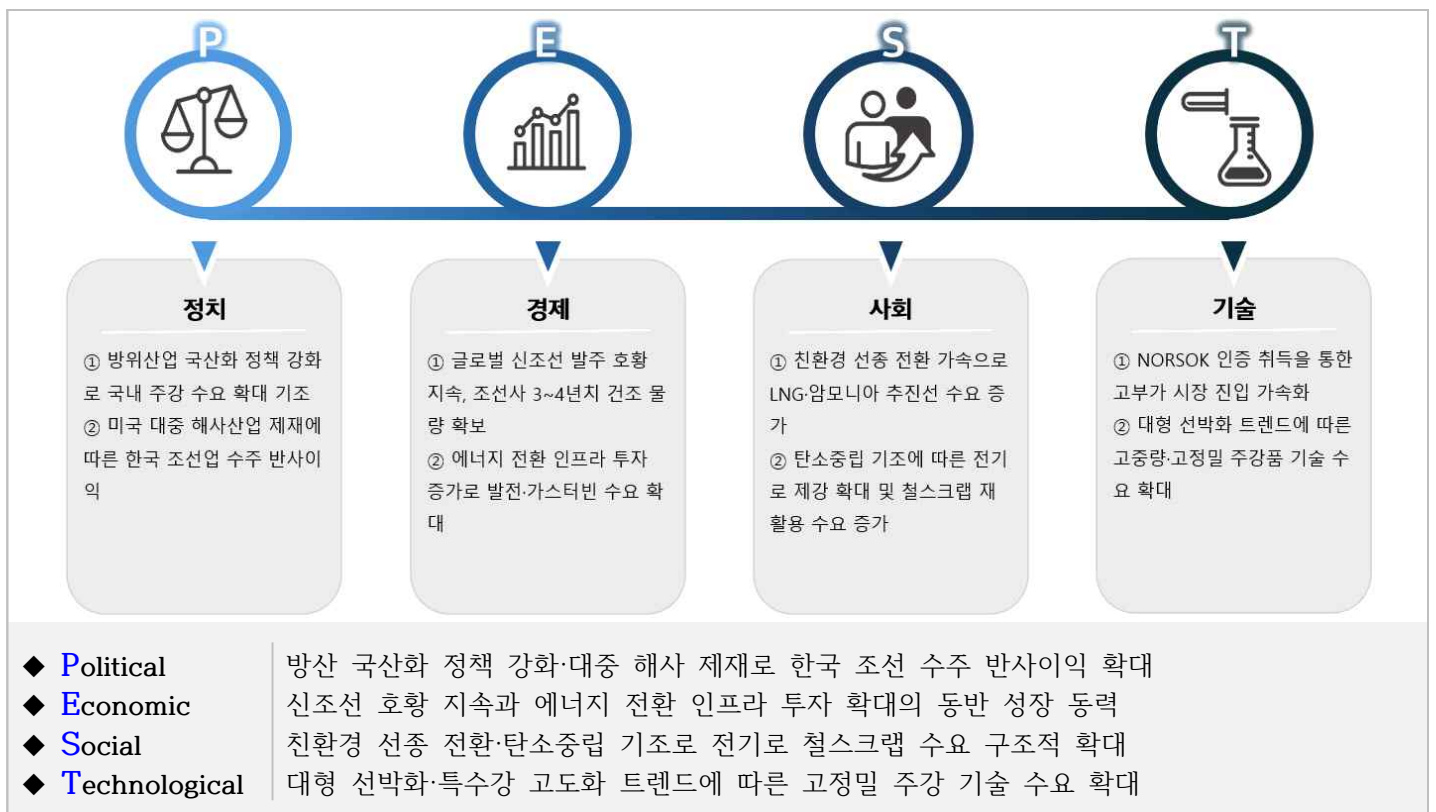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연구소를 공식 설치하여 제품 개발 및 원가절감 활동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 내재화를 통한 고부가 제품 확장 및 인증 대응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주강·압축분철 양대 축의 안정 사업구조, 견조한 재무구조 유지 가운데 일시적 수익성 조정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조선·철강 등 전방산업의 발주 조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7% 축소된 398.7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88.3억 원, 영업이익 0.6억 원, 당기순이익 0.1억 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 축소된 흐름을 나타내었다.

■ 주강사업·고철사업 양대 축 중심의 안정적 사업구조 및 매출 추이

동사는 1987년 설립된 국내 주조업계 상위 대형 주강품 전문 제조업체로, 조선, 발전, 제철, 제강, 시멘트, 광산기계 등 대형 설비용 주강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주강사업과 전기로 제강사 원재료용 압축분철을 가공 및 납품하는 고철사업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538.1억 원에서 2024년 472.8억 원(전년 대비 12.1% 축소), 2025년 398.7억 원(전년 대비 15.7% 축소)으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영업손실 1.8억 원, 매출 축소 영향에 따른 일시적 수익성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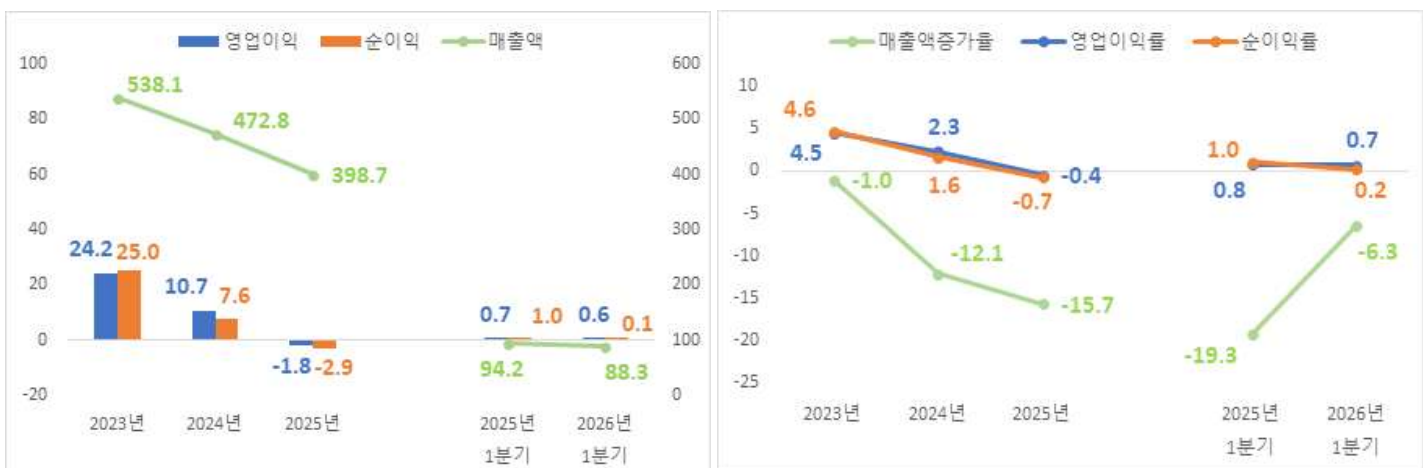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축소된 472.8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 10.7억 원(영업이익률 2.3%), 당기순이익 7.6억 원(순이익률 1.6%)을 시현하며 매출 감소 환경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원가 효율화와 고부가 주강품 비중 확대가 손익 방어에 기여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2025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5.7% 축소된 398.7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출 감소 영향과 고철사업의 수익성 조정이 복합 작용하여 영업손실 1.8억 원(영업이익률 -0.4%), 당기순손실 2.9억 원(순이익률 -0.7%)으로 일시적 적자 전환의 흐름을 시현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축소된 88.3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이익은 0.6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0.1억 원으로 흑자 기조를 시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조정된 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부채비율 15.1%, 자기자본비율 86.9%의 견조한 재무 안정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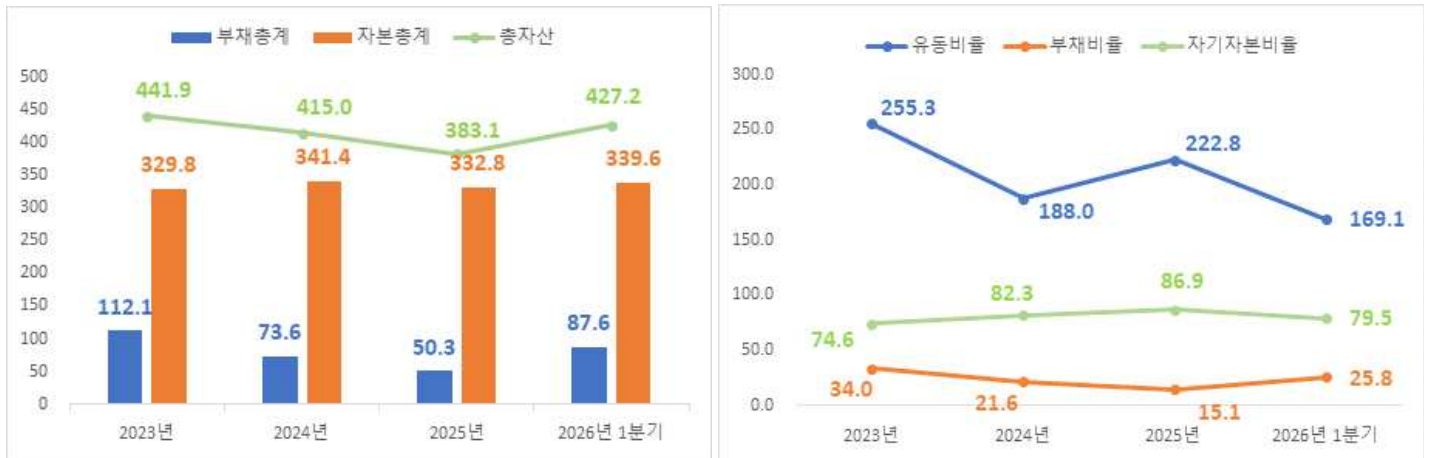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6.9억 원 축소된 415.0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8.5억 원 감소한 73.6억 원, 자본총계는 11.6억 원 증가한 341.4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67.3%p 하락한 188.0%, 부채비율 12.4%p 하락한 21.6%, 자기자본비율 7.7%p 상승한 82.3%)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1.9억 원 축소된 383.1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3.3억 원 감소한 50.3억 원, 자본총계는 8.6억 원 감소한 332.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34.8%p 상승한 222.8%, 부채비율 6.5%p 하락한 15.1%, 자기자본비율 4.6%p 상승한 86.9%)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8.4억 원 증가한 427.2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0억 원 증가한 87.6억 원, 자본총계는 2.5억 원 증가한 339.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5.6%p 하락한 169.1%, 부채비율 4.5%p 상승한 25.8%, 자기자본비율 3.0%p 하락한 79.5%)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538.1	472.8	398.7	94.2	88.3
매출액증가율(%)	-1.0	-12.1	-15.7	-19.3	-6.3
영업이익	24.2	10.7	-1.8	0.7	0.6
영업이익률(%)	4.5	2.3	-0.4	0.8	0.7
순이익	25.0	7.6	-2.9	1.0	0.1
순이익률(%)	4.6	1.6	-0.7	1.0	0.2
부채총계	112.1	73.6	50.3	71.7	87.6
자본총계	329.8	341.4	332.8	337.1	339.6
총자산	441.9	415.0	383.1	408.8	427.2
유동비율(%)	255.3	188.0	222.8	194.7	169.1
부채비율(%)	34.0	21.6	15.1	21.3	25.8
자기자본비율(%)	74.6	82.3	86.9	82.5	79.5
영업현금흐름	36.3	54.8	20.3	-4.2	-39.6
투자현금흐름	36.0	-13.1	-5.3	-1.7	-1.1
재무현금흐름	-61.3	-44.9	-21.2	-3.0	36.6
기말 현금	13.7	10.5	4.2	1.6	0.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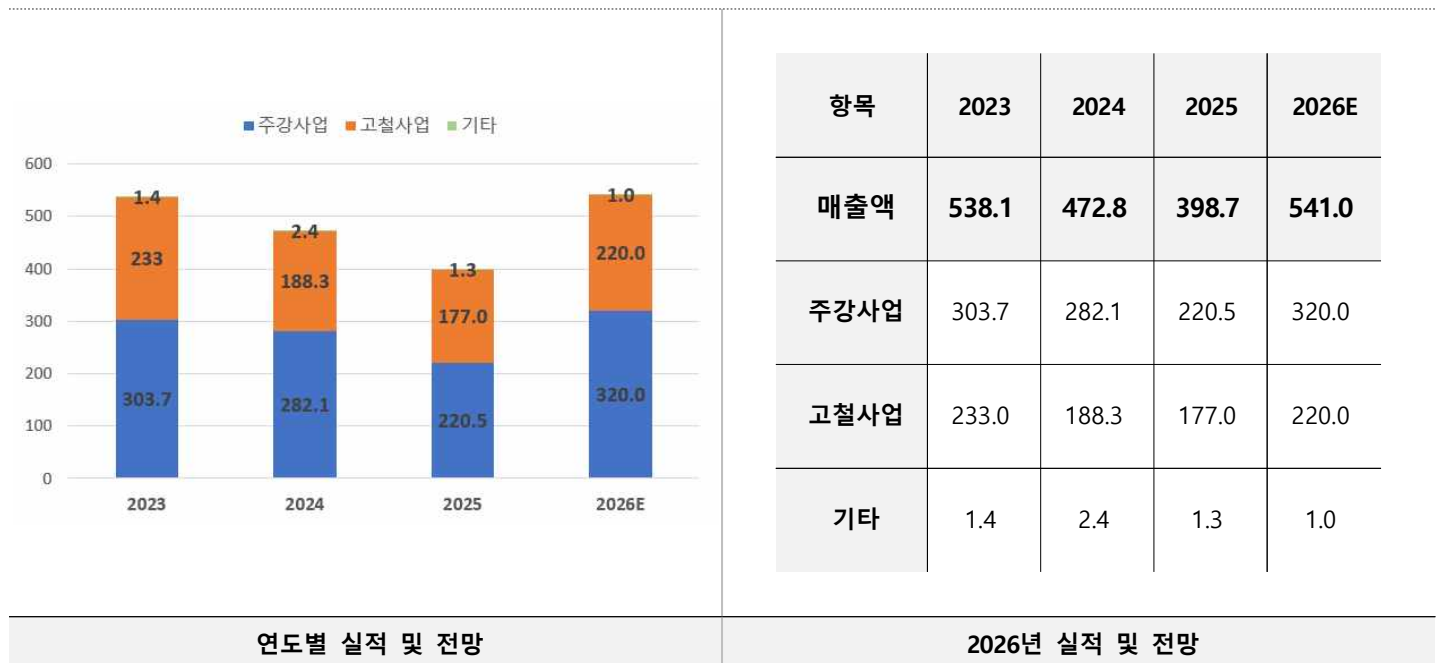
주력 사업인 주강부문은 조선용 주강품이 원청 조선사 수주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발주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2023~2024년 국내 조선업 신조 발주 회복의 실적 반영이 2026~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축분철 부문은 2025년 4분기 일평균 최대 470톤/일 전량을 전기로 제강사에 납품 중이며, 전기로 제강사의 호평을 기반으로 안정적 분철류 재활용 가공사업이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신조 발주 사이클 회복과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발전·플랜트 부문의 대형 설비투자 확대는 동사 핵심 부문의 중장기 수주 기반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의 2026년 부문 매출은 주강 320억 원, 고철 220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동사의 2026년 매출은 부문 합산 기준 541억 원이 전망된다. 동사의 신규 사업 모멘텀(조선 발주 회복 효과의 2026~2027년 본격 반영 및 압축분철 라인 증설 등)이 본격화될 경우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발전 플랜트 발주 회복과 압축분철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조선 호황 후행 수혜와 고부가 특수강 진입으로 성장 모멘텀 집중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따른 후행 수혜와 고부가 특수강 시장 진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당사는 조선용 주강 기자재 공급 확대와 NORSOK 인증 추진, 방산·해상풍력·발전 분야로의 수요처 다변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반 수주 모멘텀 본격화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 2026)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 금액은 2,3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1,813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 또한 LNG 운반선 및 친환경 선박 중심의 대규모 수주잔고를 확보하며 3~4년치 건조 물량을 보유한 상태로 파악된다.

조선용 주강 기자재는 원청 수주 이후 약 1~2년의 시차를 두고 발주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만큼, 당사의 선미주강품(Stern Boss), 러더혼(Rudder Horn), Rudder Hub Casting 등 핵심 조선 기자재 수요 역시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당사는 2026년 삼성중공업과 67억 원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약 63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진행 중이며, 누적 수주금액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선업 호황의 후행 수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조선 빅3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장기 공급계약 확대 가능성은 향후 수주잔고 증가와 실적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NORSOK 인증 기반 고부가 특수강 시장 진입 확대

당사는 현재 NORSOK 인증 취득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인증 확보 시 해양플랜트·FLNG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규격 특수강종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NORSOK은 노르웨이 석유산업 표준으로 해양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기술 신뢰도를 요구하는 인증 체계이며, 국내에서 이를 보유한 주강업체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인증 이후 공급되는 특수강 제품은 일반 주강 대비 높은 단가 프리미엄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당사의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및 해양에너지 시장에서도 NORSOK 기반 기자재 채택이 확대되고 있어, 인증 취득 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산·해상풍력·발전 산업 중심 신규 수요처 확대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산업 고도화 흐름 속에서 가스터빈 발전설비, 해상풍력,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특수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당사는 조선 및 산업기계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발전·해양플랜트·방산·해상풍력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수강종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산업 성장 수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국산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고신뢰성 주강품 공급 역량 확보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대형 주강품 시장은 높은 초기 투자비와 기술 장벽으로 신규 진입이 제한적인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 생산 역량과 납품 이력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026년 연구소 공식 설치를 기반으로 신제품 및 신강종 개발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강(02589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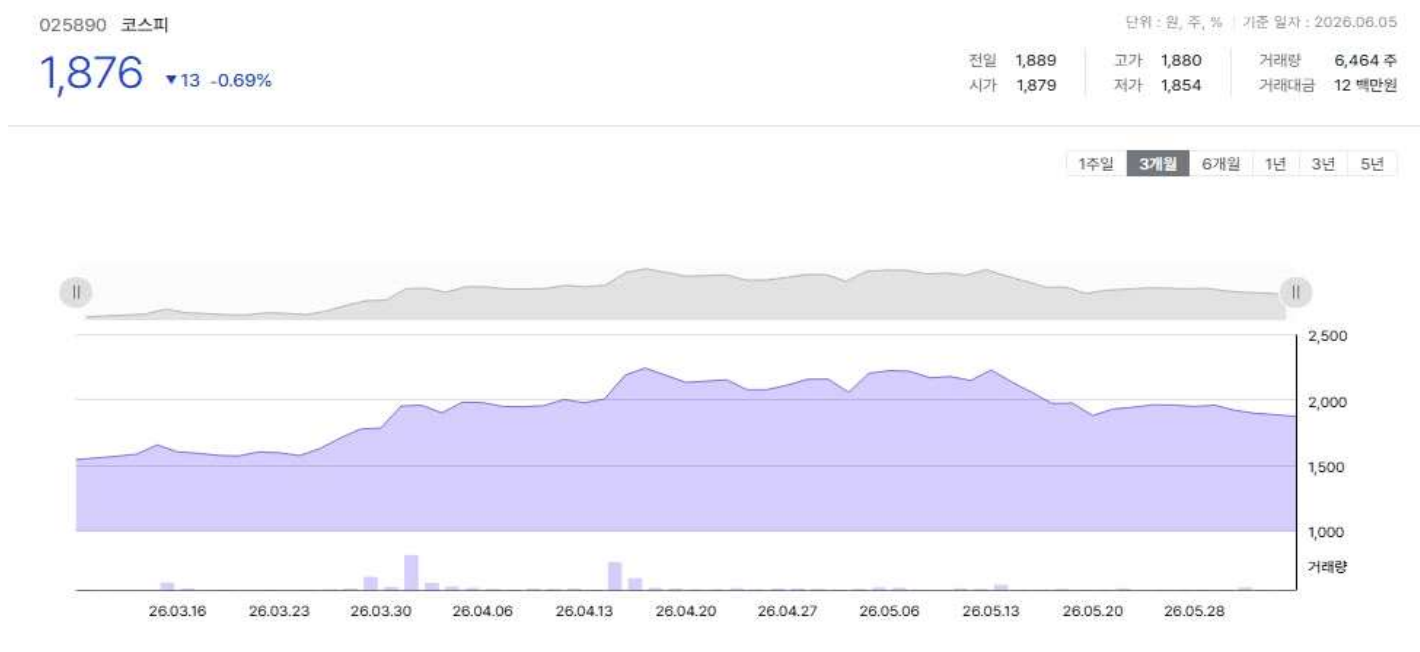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한국주강은 조선 호황 수주 모멘텀의 후행 수혜, NORSOK 특수강 인증 추진, 압축분철 증설 검토까지, 동사는 대형 주강 과점 플레이어로서 복수의 성장 동력이 동시에 가동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6.0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국주강	X	X	X